

시선

사설

눈물겨운 정경대의 ‘1억’ 요청, 학교는 그동안 대체 뭘 했는가

학내에서 가장 낮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경대학 (정경대) 학생들이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오랜 불만을 참지 못하고 행동에 나섰다. 학교 측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라는 듯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경대 학생들에게 있어 나름대로 장구한 연혁을 이어온 우리학교 SPACE21사업의 역사는 곧 ‘희망고문과 소외’의 역사와 다를 바 없었다. 지난 2007년, 당시에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불만을 갖고 있던 정경대 학생들은 ‘캠퍼스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개발 조감도 속의 정경대 신축건물을 보며 큰 기대감을 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느 틈엔가 정경대의 이름은 신축건물들 사이에서 사라져갔다. 2010년에는 정경대의 신축이 ‘2차 사업계획 이후’로 공식 유예되면서, 2차 이후 사업이 구체화되는 데에는 1~2년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2015년 현재까지도 ‘2차 이후의 사업계획’은 개념만 조차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SPACE21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동안, 정경대가 제기한 모든 종류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요구사항들은 ‘SPACE21만 기다려 달라’는 식의 수사 속에 함몰돼 갔다.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정경대의 창들은 창문이 닫히지도 않을 정도로 뒤틀려갔고, 강의실의 빔 프로젝트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망가져갔다.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을 언제 완공될지 약속도 없는 SPACE21로만 수렴시키는 사이에, 당장 ‘지금, 여기’에서 교육받아야 할 교육수혜자들은 고통을 살아온 것이다.

새내기가 입학했다가 졸업하는 4년 가량을 ‘한 세대’라고 칭한다면, 공간 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세대, 어쩌면 두 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모든 학생 구성원은 무대척으로 방치된 채 대학 생활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지금은 학교가 ‘현재 접근 가능한’ 모든 대안의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공간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휴공간이나 가용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일이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나 장비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령 일회성 행사비 등과 같이 불요불급한 데 쓰는 지출액을 끌어 모아 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해야 마땅한 노릇이다. 이 같은 노력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인 학교 측이 교육 수혜자인 학생을 위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이번 정경대 학생 측에서 학교에 요청한 특별 예산 편성액의 규모는 대략 9,0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대학의 한 해 운영비가 약 5,000억 원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000명에 달하는 학생 구성원을 위한 1억 원 남짓한 비용은 학교 측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것을 사전에 조치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직접 움직여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빚어냈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일말의 의지를 가진 상황이라면, 당분간 SPACE21은 잊고 ‘지금, 여기’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모을 때다.

성범죄 위험도 동대문구 23위, 영통구 225위

미디어 여론동향 2015. 3. 16 ~ 3. 2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공인회계사 1차 시험결과 우리학교 학생 107명이 합격했다.(2015년 CPA 1차 107명 합격, 전년대비 21명 증가/대학주보 온라인, 2015.3.17) 이는 2014년 1차합격자 86명보다 21명 늘어난 숫자다. 공인회계사반(청현재) 최연식(회계세무학) 주임교수는 경영대학 구성원에게 전하는 이메일을 통해 “경영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차 시험의 성과가 6월에 있을 2차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Give경희



이 주의 주제 - 국제캠퍼스 6년 만의 총투표와 남은 문제들
총투표, 그 다음의 의미가 더 크다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국제캠퍼스에서 6년 만에 열린 총투표가 연장투표 끝에 투표율 50.3%로 성사됐다. 총학에서 “총투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중요한 투표였고, 그만큼 투표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투표율 문제에서 늘 비판의 화살은 우선 학생대중을 향해왔다. 다만 이번 총투표에 관해서는 ‘학생대중의 무관심’보다 총학의 준비 부족 탓이 더 커 보인다.

우선 총투표를 발의한 배경이 ‘학생들의 뜻을 반영해, 향후 전개할 사업을 결정하겠다’라면, 추진과정부터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제캠 총학 홈페이지와 총학에서 임시사용 중이라고 밝힌 네이버 카페,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 등 어디에서도 총투표와 관련된 회의록은 찾을 수 없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투표동력, 공고와 같은 ‘결과통보’만 간간히 눈에 띄곤 있다.

그렇게 ‘어떻게든’ 마련된 투표안건 4가지가 등장했다. 이후 총투표 홍보자료를 통해 총학생회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각 안건별 찬·반의 입장을 다뤘다. 문제는 부정확성이다. 예를 들어 총학생회는 국제캠

퍼스는 부총장이 1명인 반면, 서울캠퍼스는 6명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양 캠퍼스의 부총장은 총 5명이고, 각 캠퍼스를 관할하는 부총장은 각각 1명씩 있다. 재정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은 양 캠퍼스 모두를 관할하고, 의무부총장의 경우 경희의료원이 서울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울캠퍼스에서 ‘상주’할 수밖에 없다. 정확성을 위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섰을 때 마주한 안건별 ‘보기’였다.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명확히 나뉘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점이 투표의 문제를 지적받을 정도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보기는 ‘올바른 대학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와 ‘대학평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였다. 어느 학생이 올바르게 지킨 대학을 바라겠는가. 법인전입금의 교비납부 여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낸 등록금은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하는 일 아닌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 대답만 하면 돼)”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총학의 의지까지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총투표는 분명 학생들의 학내사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일 수 있었다. 하지만 투표결과만으로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어려워 보인다. 양 캠퍼스에 차별이 있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추가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법인전입금 교비납부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이사를 구체화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6년 만에 성사된 총투표, 그 다음의 의미가 더 크다.

위험도 순위에서 23위, 국제캠퍼스가 속한 용인시 기흥구는 225위를 기록했다.(서울캠 주변 성범죄 고위험 지역 5곳, 국제캠 상대적으로 저위험/대학주보 온라인, 2015.3.23) 성범죄위험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폭력 발생 범죄율과 인구밀도, 범죄 취약 여성 구성비 등을 토대로 개발한 지수로, 높을수록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구는 성범죄위험도(118.6), 강간위험도(121.9), 성추행위험도(113.5) 모두 고위험(11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성범죄위험도(83.5)와 성추행위험도(89.7)는 저위험(80점 이상 90점 미만)에 속했고, 강간위험도(77.0)는 초저위험(80점 미만)이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대인관계’(경희숲_7628, 2015.3.17)에 관한 내용의 글이 인기가 높았다. 글쓴이는 신입생과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밤이나 술을 먹는데, 같이 있을 때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후배들을 보면 후배들의 술 서툰, 밤 서툰이 된 기분이라며 불쾌하다는 글을 남겼다. 댓글로 “위와 같은 사례는 선·후배뿐만 아니라 동기들 사이에서도 매우 불쾌한 경우라며 식사나 술자리에서 핸드폰 사용을 주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미지-상식으로 굳기 전
우리학교의 강점 ‘믿게 해야’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배우 이태임 씨와 아이돌 예원의 ‘욕설논란’은 시эт 말로 좋은 떡밥이었다. ‘여자 연예인’이 촬영 중 ‘욕’을 했더라는 사실 자체로 이목이 쏠렸다. 외글와글 떠드는 이야기 속에서 1round는 배우 이태임의 패배였다. 그는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런데 지난 27일 당시 촬영영상이 공개됐다. 2round가 열리는 서막 앞에 영상에 댓글이 달렸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난 딱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미지란 것을 정의내리기에 가장 탁월한 문장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과 인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상의 형상이다. 결국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투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지난 23일 발표한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연구결과 보고서에 소개된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니섹스 캐주얼이 어울리는 20~24세 문화예술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의 경우 신입생 중 남자의 비율이 많았고, 예술계열보다 이·공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 소속 학과가 더 많다. 학생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실과 다른 셈이다. 문제는 이미지가 사실과 다른 것과, 그 의미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이다. 각자의 이미지가 모이면 하나의 통념이 되고, 어느새 상식이 되기 마련이다. ‘그건 원래 그래’라는 아주 견고한 상식은 허물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학교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요소를 읽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변에 ‘경희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으면, 주로 나오는 대답은 아름다운 본관 및 건축물 또는 벚꽃으로 뒤덮인 캠퍼스 등이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가지는 본질적인 목적, 이를테면 학문 연구와 발전, 교육이념의 가치와 전파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학교를 듣고 떠올리는 대답이 아름다운 캠퍼스나 벚꽃놀이 등에 치중돼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9년 경희대에 대한 ‘무색무취’라는 이미지에서, 2015년으로 이미지가 변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미지로 고착화된 적은 셈이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으로 대표되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학풍이나, 후마니타스 교육을 통해 소양을 갖춘 지적 인격체를 길러낸다는 강점이 이미지, 즉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에 스며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연예계의 가십, 혹은 논란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연예기획사 임원은 이런 말을 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또 외부에서 ‘경희대’가 무엇을 상징하고 또 이뤄나간다고 보게, 아니 더 넘어서 ‘믿게’ 할 것인가. 이제 막 그것을 보여주는 능력의 첫걸음을 내딛은 상황이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난 딱 보고 그럴 줄 알았다’라는 댓글이 없도록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래71동)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1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